

# 현대차그룹, 국내 친환경차 판매 13년만에 100만대 돌파

2009년 7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 출시 이후 누적 102만3484대 그랜저 하이브리드 18만3837대 1위·기아 니로 하이브리드 뒤이어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국내 판매량이 누적 100만대를 넘어섰다. 2009년 7월 아반떼 LPi 하이브리드를 출시하면서 친환경차 시장에 본격 진입한 지 13년 만으로, 현대차·기아의 올해 상반기 친환경차 수출도 처음 20만대를 넘어섰다.

8월 현대차그룹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는 올해 7월 국내 시장에서 친환경차 2만9484대를 판매해 누적 판매 대수 102만3484대를 기록했다.

회사별로 보면 현대차(제네시스 포함)가 55만6854대(전기차 14만3636대, 수소전기차 2만4874대, 하이브리드차 38만8344대), 기아가 46만6630대(전기차 8만6100대, 하이브리드차 38만530대)를 각각 팔았다.

국내 누적 판매량이 가장 많은 차종은 현대차의 그랜저 하이브리드로, 2013년 출시돼 지금까지 18만3837대가 팔렸다. 2018년(2만4568대)부터 2019년(2만9708대)과 2020년(3만8989대)을 거쳐 지난해(2만6977대)까지 4년 연속 2만대 이상씩 팔렸다.

올해 하반기 완전변경 모델인 7세대 그랜저가 출시되면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누적 판매 대수는 조

만간 2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그랜저 하이브리드 다음으로는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가 12만6485대가 팔려 누적 판매 대수 2위에 올랐다. 2016년 1세대가 나온 뒤 6년 만에 올해 2세대 완전변경 모델이 출시된 니로는 기아의 친환경 경 전용 스포츠유틸리티차(SUV)다.

이어 쏘나타 하이브리드(9만8323대), 쏘렌토 하이브리드(8만5809대), K8 및 K7 하이브리드(7만3845대) 등이 상위 5위에 들었다.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수출도 처음으로 20만대를 돌파했다.

이날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현대차·기아의 지난 1~6월 친환경차 수출은 22만4672대로 작년 같은 기간(17만1468대)보다 30.6% 증가했다.

현대차는 11만6770대를 수출해 작년 상반기보다 22.1% 늘었고, 기아는 42.3% 증가한 10만7902대를 수출했다.

현대차그룹 두 완성차업체의 상반기 친환경차 수출이 20만대를 넘어선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올해 1분기(11만1202대)에 분기 수출 대수로는 최초로



현대차가 최근 공개한 전용 전기차 브랜드 아이오닉의 두 번째 모델 '아이오닉 6' (왼쪽)과 기아가 '2022 부산 국제모터쇼'에서 공개한 콘셉트 EV9.



10만대를 돌파한 데 이어 2분기(11만3470대)에도 10만대 넘게 수출한 결과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간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40만대 선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차 수출은 9만5603대로 지난해 상반기(6만2063대)보다 54%나 증가했다. 현대차가 4만5375대로 지난해 대비 56% 늘었고, 기아가 5만

288대로 52.4% 증가했다.

전동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현대차그룹의 친환경차 판매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대차그룹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가 처음 적용된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지난해 4월 출시된 이래 1년여 만에 국내에서 4만876대가 팔렸다. 같은 플랫폼이 적용된 기아 EV6는 2만6230대,

제네시스 GV60은 5127대 각각 판매됐다. 이들 세 모델의 국내 누적 판매 대수는 7만2233대다.

다음 달에는 현대차의 첫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가 출시되며, 기아 EV6의 고성능 모델인 EV6 GT도 올해 출시된다. 내년에는 기아의 두번째 E-GMP 기반의 전용 전기차이자 대형 전기 SUV인 EV9도 출격을 앞두고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벤츠 코리아, 서비스 품질 8년 연속 1위

'수입자동차판매점' 부문... '수입 인증 중고차'는 2년 연속 1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22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SQI) 고객접점 부문 조사에서 '수입자동차판매점' 및 '수입 인증 중고차' 2개 부문에서 판매 서비스 품질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는 고객들이 체감하는 국내산업의 서비스 품질을 나타내는 지수로, 고객접점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34개 산업에 속한 133개 기업 및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서비스평가단이 '미스터리 서베이'(mystery survey) 방식으로 직접 방문해 서비스 품질을 평가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벤츠 코리아는 '수입자동차판매점' 산업 부문에서 97점의 높은 점수를 받으며 8년 연속 서비스품질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11개 서비스 평가 항목 중 경쟁태도와 업무지식, 시설환경관리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으며, 이외 경쟁태도와 설명능력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지난해 새롭게 신설된 '수입 인증 중고차' 산업 부문에서는 94점을 기록하며 2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벤츠 코리아는 '수입 인증 중고차' 평가 항목 중 경쟁태도와 업무지식, 시설환경관리 영역에서 최고점을 받았다.

전국 63개 공식 전시장, 75개 공식 서비스센터를 운영하며 편리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고객들에게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이상국(왼쪽 두번째) 세일즈 부문 총괄부사장과 최나리(왼쪽 세번째) 법인영업·인증중고차 부문 상무가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벤츠 코리아는 이번 수상을 통해 브랜드 명성에 걸맞은 최고 수준의 서비스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자평했다.

벤츠 코리아는 2011년 인증 중고차 시장 진출 이후 현재 국내 수입차 기준 전국 최대 네트워크인 23개의 인증 중고차 공식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

다. 한편, 벤츠 코리아는 한국소비자협회 주관 '2022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글로벌 브랜드 부문 5년 연속 1위, '2021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수입차 애프터세일즈 서비스 부문 6년 연속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에어본, 독일 '레드닷 어워드' 수상

금호타이어는 '에어본 타이어'(Airborne Tire·사진) 제품으로 독일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2022'(Red Dot Design Award 2022) 디자인 콘셉트 부문에서 본상(winner)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레드닷 어워드는 독일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가 1955년부터 디자인 콘셉트, 제품, 브랜드&커뮤니케이션의 3개 부문으로 나누어 디자인을 평가하는 시상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디자인 공모전으로 꼽힌다.

국내 UAM(Urban Air Mobility·도심 항공 모빌리티) 개발업체들은 2025년 UAM을 출시할 계획이고, 2030년 정식 서비스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표적인 UAM인 도심형 수직 이착륙 항공기를 100% 전기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UAM의 구현을 앞두고 자기 부상 열차 시스템에 착안해 자기장을 이용한 UAM 시스템 타이어를 기획했다.

올해 수상 제품인 UAM용 시스템 타이어 '에어본 타이어'는 자기장 서스펜션 및 회전 휠 장치를 통해 별도의 휠모터 없이 전기만으로 스스로 바퀴를 회전시켜 항공기를 움직일 수 있고, 항공기가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자기장의 힘을 이용해 타이어 바퀴가 공중에 떠 있게 된다. 고무 부품과 에어리스 부품이 혼합된 구성으로 수직 이착륙에 부드러운 착륙이 가능해 승객들이 느낄 수 있는 큰 충격을 감소시켰다.



조만식 금호타이어 연구개발본부장은 "에어본 타이어는 자기장을 이용해 단순한 구조로 안전함을 극대화하는 착륙용 서스펜션, 그리고 스스로 바퀴를 굴러 차량을 움직이는 컨셉의 미래형 타이어"라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술명가'라는 명칭에 걸맞게 기술 연구개발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oxer@

## '스포티지 LPG' 계약하면 충전 상품권 증정

대한LPG협회 내달 7일까지

대한LPG협회는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한 달간 '스포티지 LPG' 출시를 기념해 차량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LPG 충전 상품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스포티지 LPG 계약 이벤트는 행사 기간 네이버 카페 '스포티지 NQ5 클럽'과 '스포티지 매니아'에서 참여할 수 있다. 각 온라인 카페 계약 인증 메뉴에서 스포티지 LPG 계약서 또는 계약 완료 문자를 게시글을 통해 인증하면 된다.

커뮤니티별 선착순 50명씩 총 100명에게 3만 원 상당의 LPG 충전상품권을 증정하며, 우수 후기자 10명을 추가 선정해 5만 원 상당의 LPG 충전상품권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기아 대표 베스트셀링 모델인 스포티지의 LPi

모델은 스마트스텝 L2.0 엔진을 탑재해 최고 출력 146마력, 최대토크 19.5kg·m의 성능을 발휘한다.

스포티지 LPi는 지난달 26일 출시 이후 일주일간 4800여대 이상 계약됐는데, 이는 신형 스포티지 계약물량 중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가성비 높은 LPG 모델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달 첫째 주 기준 전국 평균 LPG 가격은 리터당 1092원으로, 휘발유(1882원)와 경유(1970원)에 저렴하다. 연비를 감안하면 가솔린 모델 대비 유류비를 22% 아낄 수 있고, 연간 1만 5000km 주행 시 5년간 운행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해 보면 240만원 가량 절감된다는 게 대한LPG협회의 설명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완주방향) 수소충전소 개장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순천-완주고속도로 오수(완주방향) 휴게소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11일부터 영업을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운영을 시작하는 오수(완주방향) 수소충전소는 광주전남본부 관내 고속도로 수소충전소 중 백양사(천안방향)와 함평천지(목포방향) 수소충전소에 이어 세 번째 개장하는 곳이다.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충전요금은 kg당 8000원이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9월 영암-순천고속도로 장흥정남진(통합)휴게소에도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를 확충해 친환경차를 운행하는 고객들이 편리하게 충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현대차 날다 현대자동차는 지난 4일부터 7일(현지시간)까지 핀란드 위베스켈레(Jyvaskyla)에서 진행된 2022 월드랠리챔피언십(WRC) 8번째 라운드 '핀란드 랠리'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핀란드 랠리에서 현대차 'i20 N Rally1' 하이브리드 경주차가 주행하고 있는 모습. <현대차 제공>